

민주당 “재보선 패배, 민심 아프게 수용하겠다”

서울·부산시장 선거, 국민의힘 오세훈·박형준 압승
박영선 “모든 것 받아들여” ... 김영춘도 패배 인정

여야 모두 인적 쇄신 불가피

7일 치러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참패했다. 민주당은 망연자실한 가운데 당정책임론에 휩싸이는 등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부활’에 환호했다. <관련기사 4면>
이날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8일 0시 현재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6%를 얻어 민주당 박영선 후보(41%)에 승리했다. 부산시장 보선에서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3%를 득표해 민주당 김영춘 후보(34%)를 크게 앞서는 사실상 당선은 확정했다.
이에 앞서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이날 공동으로 출구조사를 해 오후 8시15분 투표 완료

직후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9%를 얻어 민주당 박영선 후보(37.7%)에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부산시장 보선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4%를 득표해 민주당 김영춘 후보(33%)를 역시 큰 격차로 앞설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이날 개표 초반 국민의힘 후보에 큰 표차로 뒤진 것으로 나타나자 일찌감치 패배를 인정했다. 박 후보는 개표가 진행되던 중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겸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면서 가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회초리를 들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겸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영춘 후보도 부산 부산진구의 선거사무소에서 “민심의 큰 파도 앞에서 결과를 겸허

하게 수용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 후보는 “저와 민주당은 앞으로도 부산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참여해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하면서 집권 5년차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에 힘이 실리며 정국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여권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서울·부산시장 모두 수성에 실패한데다 제1야당 국민의힘과 박빙의 승부를 벌이던 두 자릿수 이상의 큰 격차로 참패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대선 정국을 앞두고 매서운 ‘정권 심판론’ 정세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강경 일변도의 국정 기조를 이끌어온 당정청 수뇌, 특히 친문 주류를 향한 책임론이 들끓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일단 민주당은 이번 선거로 드러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흔들리는 소극적 지지층을 다시 붙들어서 대선 투표장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쇄

신하는 정부 여당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내달 초 당대표 선출을 위한 5·9 전당대회, 김태년 원내대표 후임을 뽑을 경선 등이 줄줄이 예정되어 지도부 교체를 통한 당 운영기조 변화는 필연적이다. 특히 부동산 투기와 시장 과열을 막지 못한 규제 중심의 정책, ‘추미애-윤석열’ 갈등 사태를 불러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강행 등 검찰개혁 추진 기조에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진 이번 서울·부산 재보궐에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후보를 공천한 이낙연 전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지도부 인사는 “패배 결과에 따른 혁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최고위 총사퇴 필요성을 거론했지만, 다른 의원은 “질서있게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며 반대 견해를 내비쳤다.
당대표 대행을 맡고 있는 김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해 차기 경선을 앞당기거나, 비대위를 꾸려 전당대

회 전까지 당 수습을 시도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반론도 만만찮아 향후 갈등이 표면화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치러진 순천시 제1선거구 전남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춘욱(56) 후보가 당선됐다. 개표 마감 결과 한 후보는 8055표(득표율 64.79%)를 얻어 4377표(득표율 35.20%)를 얻은 무소속 주윤식 후보를 큰 표차로 눌렀다.
고흥군 제2선거구 전남도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박선준(42) 후보가 당선됐다. 개표 마감 결과 박 후보는 9045표(득표율 53.34%)를 얻어 7912표(득표율 46.65%)를 얻은 무소속 정순열 후보를 눌렀다.
보성군의원 다선거구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조영남(59) 후보가 당선됐다. 개표 마감 결과 조 후보는 2209표(득표율 45.12%)를 얻어 2204표(득표율 45.02%)를 얻은 무소속 윤정재 후보를 불과 5표 차이로 이겼다. 조 후보는 보성군의원을 지냈으며 민주당 보성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SRF 가동 여부 法の 판단은? 광주시·나주시 ‘긴장 고조’

15일 법원 판결...지역난방공사도 소송 결과따라 강력 대응 예고

뉴스 초점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가리는 법원 선고를 앞두고 광주시와 나주시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소송의 주체는 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인허가권자인 나주시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광주시와 나주시의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시는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빛가람혁신도시 시민단체 등은 광주 생활폐기물로 만든 연료 반입 반대를 외치며 가동을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각각 제출하는 등 양측의 입장은 팽팽선을 보이고

있다.
7일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사용자지 공동대책 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5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대책위는 지난 5일 광주지법에 시민 1만5950명이 연명한 SRF발전소 가동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난방공사의 SRF시설에 대해 나주시가 공익 우선에 가치를 두고 ‘사업개시 수리’를 거부한 것은 환경과 생명 존중의 시대정신에 부합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 지역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처리해야 모두가 쓰레기 처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쓰레기 처리의 대원칙인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기대한다”며 “특정 지역(광주) 힘에 밀려 나주시민이 고통을 받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고를 앞두고 먼저 움직인 것은 광주시였다. 지난달 19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재판부에 “나주시가 발전소 사업개시 수리서를 반려해 현재까지 광주시 광역위생매립장에 약 50만톤의 쓰레기가 직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선고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광주시와 나주시가 성명서 등을 발표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나주 SRF발전소 전경.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매립되면서 매립장 수명이 4년 이상 단축되고, 막대한 폐기물 처리비용 추가 발생하고 있다”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이어 “발전소 가동이 막히면서 광주 SRF사업 투자공모에 선정된 민간투자 사업자(청정빛고을·생활폐기물을 연료로 만드는 업체) 재정 상황도 함께 악화되고 있다”며 조속한 법원 판결을 호소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와 5개 구가 광주 생활쓰레기 전량을 ‘연

료’라는 미명 아래 이웃 지자체인 나주시로 매일 100% 떠넘기기 위해 추진 중인 ‘이거적인 쓰레기 행정’ 강행 움직임을 보인다”고 직격하고 나서 등 양측의 신경전은 격화돼 있다.
발전소 운영사 한국지역난방공사도 1심 승소를 전제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법원이 난방공사 손을 들어줄 경우, 즉각 사업개시신고 수리를 받아 가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사업개시신고 수리를 거부할 경우 나주시와 시장, 담당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혔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SRF발전소와 LNG 발전소를 모두 갖추고 지난 2017년 준공됐다. 사업비 2700억원이 투입됐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2017년 8월 시운전을 시작, 12월 준공 후 정상 가동에 들어가야 했지만 광주권 연료 반입 문제와 SRF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 악영향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로 멈춰서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영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광주군이됩니다
대한민국이달라집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이제 국가와 함께 풀어갑니다

광주와 전남이 상생하며 새롭게 출발합니다

국가 중요 국방시설로서 막대한 자원과 지원이 필요한 국가사업인 만큼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와 함께 최선의 해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앞으로 광주와 전남은 소통과 배려를 통하여 상생하며 양 시도가 도약하는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